

남녀의 가해동기와 폭력 정당화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APIM)의 적용*

이 수 정¹⁾

권 호 인[†]

본 연구는 남녀의 가해동기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폭력 정당화의 매개효과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포함하여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3개월 이상 교제 중인 만 19세 이상 성인 미혼 남녀커플 총 135쌍으로, 커플 각자에게 가해동기, 폭력 정당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자기보고 척도를 실시하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사용하여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 남녀의 가해동기는 자신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였으며, 여성의 가해동기는 남성의 폭력 가해에 대한 유의한 파트너 효과도 보였다. 또한 남성의 가해동기는 자신의 폭력 정당화를 매개로 자신의 데이트 폭력 가해와 파트너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여성의 폭력 정당화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남녀의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있어서 가해동기와 폭력 정당화의 경로에 성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가해동기, 폭력 정당화, 데이트 폭력 가해, APIM

* 본 논문은 이숙정의 2020년도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 졸업, 전주대학교 카운슬링센터

† 교신저자 : 권호인,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Tel : 063-220-4666, E-mail : hikwon14@jj.ac.kr

성인 초기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이성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남녀는 데이트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하며, 결혼 역할을 사회화하기도 한다(권석만, 2004). 또한 이성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고, 인간관계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기 성찰이 강화된다(이정화, 2007).

이처럼 연인관계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상호작용 과정에서 갈등이나 다툼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갈등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김도연, 이기은, 이종현, 2017). 데이트 폭력(dating violence)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선행연구에서 커플 중 한 사람이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에게 심리적,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이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며(오윤희, 임성문, 2019), 심리적·언어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폭력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려는 행위로 정의되기도 한다(이화영, 2014). 이외에도 데이트 폭력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이는 데이트 폭력의 하위 유형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차이일 뿐 모두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하예지,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연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으로 정의한다.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손상을 가져오며, 이후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사공은희, 2007). 데이트 폭력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사랑싸움으로 인식하여 심각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적절한 개입이나

중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연인관계에서 행해지는 폭력은 만성적이며, 폭력의 강도가 점차로 심해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서경현, 안귀여루, 2007). 이러한 심각성을 알려 경각심을 깨우치고 개입을 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2개월간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2019년 7월과 8월 2개월간 총 4,18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폭행과 상해가 64.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 20대가 35.7%로 가장 많았다(경찰청 브리핑, 2019). 데이트 폭력 신고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였는데, 2017년 데이트 폭력 신고건수는 14,136건, 2018년 18,671건, 2019년 19,940건으로, 2017년 대비 2019년 41.1%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경찰청 브리핑, 2020). 통계적 현황과 더불어 최근에는 공인의 데이트 폭력(뉴스핌, 2020.05.21.), 군인의 데이트 폭력(뉴스1, 2019.08.12.), 광주 데이트 폭력(서울경제, 2019.12.19.) 등으로 언론 매체에서도 데이트 폭력 관련 사건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이렇듯 연인관계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데이트 폭력을 미리 방지하고 효과적인 치료 개입을 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가 데이트 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최근까지 연구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가정폭력(김예정, 김득성, 1999; 서경현, 2004; 손연우, 권호인, 2018), 폭력에 대한 태도 및 인식(김동기, 2009; O’Keefe, 1997; Riggs & O’Leary, 1996), 정서 및 성격특성(서경현, 2002; 이지연, 오경자, 2007; 장희숙, 조현각, 2001; Makepeace, 1981; O’Keefe, 1997),

음주(서경현, 이영자, 2001; 양난미, 2009; Foo & Margolin, 1995; O'Keefe, 1997; Riggs & O'Leary, 1989) 등 심리사회적 변인과 상황적 변인이 있다. 가정폭력 관련 연구에는 부모 간의 폭력 행동 목격이나 부모의 직접적인 폭력 행동 등이 포함되며, 폭력에 대한 태도 및 인식과 관련한 연구는 폭력의 수용성, 편견, 데이트 관계 신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서 및 성격특성과 관련된 연구에는 공격성, 충동성, 자존심, 분노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에 관한 다양한 변인이 연구되어왔는데 그 중, 상황적 변인에 해당하는 지각된 가해동기와 관련해서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Flynn & Graham, 2010). 지각된 가해동기는 자신이나 파트너가 공격적으로 행동한 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구통계학적이나 문화적 요인과 같은 객관적 위험요인 측정에서 밝히지 못한 데이트 폭력의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Flynn & Graham, 2010). 즉, 지각된 가해동기는 공격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구분해주며,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예방과 성별의 지각된 가해동기 차이 비교를 통해 개인의 입장을 재해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데이트 폭력 개입에 상당한 유용성이 있다(Collins, 2009; Flynn & Graham,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녀는 폭력에 대해 서로 다른 가해동기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오윤희와 임성문(2018)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분노, 질투감과 같은 정서상태와 알코올 중독, 물질 중독, 물질 사용과 같은 정신 및 신체상태의 영향으로 데이트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컸으며, 여성은 자신의 힘과 권위를 행사하거나 상대방을 통제하

기 위해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컸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폭력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였으며(Cascardi & Vivian, 1995; Malloy, McCloskey, Grigsby, & Gardner, 2003),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강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Lanhinrichsen-Rohling, Misra, Selwyn, & Rohling, 2012). 한편, 분노, 질투, 바람과 같은 가해동기에서는 성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Lanhinrichsen-Rohling et al., 2012).

이처럼 지각된 가해동기의 성차에 대한 양상이 상당히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 한정된 동기만을 측정하거나 여러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여러 가해동기를 포괄하는 타당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남녀의 가해동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Lanhinrichsen-Rohling et al., 2012). 또한 지각은 지각자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평가하는 가해동기를 조사하고(오윤희, 임성문, 2019), 지각된 가해동기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실제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Neal & Edwards, 2015).

폭력 정당화(Justification of violence)는 데이트 폭력을 설명해 주는 강력한 예언변인이다(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손혜진, 전귀연, 2003; 장희숙, 조현각, 2001; 정소영, 임채영, 이명신, 2011; Riggs & O'Leary, 1996). 지각된 가해동기와폭력 정당화를 본 선행연구(신혜섭, 2007; 하예지, 서미경, 2014; 홍성열, 2000; Roscoe & Benaske, 1985)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끔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을 때 폭력을 더 많이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pezza & Arriaga, 2008). 또한

남성의 경우 파트너에게 무시, 모욕, 창피, 비난 등을 받을 때 폭력을 사용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여성의 경우 자신이 위협을 당한다고 느낄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질투 상황일 때 폭력을 사용해도 정당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Roscoe & Benaske, 1985). 즉, 지각된 가해동기는 폭력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남녀는 서로 다른 가해동기에 따라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폭력 정당화는 가해행동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파트너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문지혜, 2015; 이지연, 오경자, 2007; 홍성열, 2000; Capezza & Arriaga, 2008; Celeste Walley-Jean & Swan, 2009; Riggs & O'Leary, 1996). 반면, 오히려 폭력을 정당하다고 생각할수록 폭력행위를 적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며, 이는 폭력적인 행위와 태도 사이의 불일치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연성진, 2000). 또한, 폭력에 대해 정당화하는 태도가 실제 폭력행동과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Straus, 1978). 이와 비슷하게 성별에서도 폭력 정당화와 데이트 폭력 관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폭력에 대한 정당화하는 태도가 데이트 폭력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데이트 도중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Bookwala, Fricze, Smith, & Ryan, 1992). 즉, 성별 차이에서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에 대한 태도가 남성에게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폭력 정당화는 데이트 폭력에 주요 변인으로 연구되어왔으나 아직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가해동기가 폭력 정당화를 매개로 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있으나(Riggs & O'Leary, 1996), 세부적인 동기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가해동기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성차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폭력 정당화가 폭력 가해로 이어지며 남녀의 서로 다른 가해동기가 폭력 정당화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를 커플 관계에서 입증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드문 실정이다. 또한 데이트 폭력은 상호 연관성이 큰 연인관계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연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개인분석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성인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Kenny (1996)가 제안하는 양자관계 분석법인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ctor-Partner Interpersonal Model; APIM)을 사용하여 상호 비독립적인 두 사람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가해동기, 폭력 정당화,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영향력을 동시에 알아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폭력 정당화의 매개효과를 통해 변인 간의 경로를 탐색하여 데이트 폭력의 예방과 개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커플의 가해동기, 폭력 정당화, 데이트 폭력 가해에서 성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커플의 가해동기, 폭력 정당화, 데이트 폭력 가해에 있어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커플의 가해동기, 폭력 정당화,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폭력 정당화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미혼 남녀커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선행연구(김수

경, 2003)를 기반으로 교제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커플로 선정하였다. 모집은 SNS 홍보 및 대학교별 커뮤니티에서 ‘성인 미혼 남녀커플 간의 관계’ 라는 제목으로 진행하였으며, 상호 동의하에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150쌍 커플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15쌍을 제외한 총 135쌍(270부)의 자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70)

구분	남성(N=135)	여성(N=135)
연령	만19세-만22세	52(38.5)
	만23세-만26세	64(47.4)
	만27세-만29세	15(11.1)
	만30세-만39세	4(3.0)
교제기간	3개월-6개월	18(13.3)
	6개월-1년	32(23.7)
	1년-3년	47(34.9)
	3년-5년	21(15.5)
	5년이상	17(12.6)
최종학력	고졸	3(2.2)
	대학재학	56(41.5)
	대학졸업	57(42.2)
	대학원재학	14(10.4)
	대학원졸업	5(3.7)
직업	대학생, 대학원생	68(50.4)
	전문직	23(17.0)
	서비스, 판매직	6(4.4)
	사무직	21(15.6)
	자영업	2(1.5)
	무직	12(8.9)
	공무원	2(1.5)
	기타	1(0.7)

주. ()는 %임

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 문항은 온라인 설문지로 제작하였으며, 참여를 완료한 커플에게는 소정의 기프트콘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녀 각각 135명이었다. 연령범위는 남성의 경우 만19세~만39세, 여성은 만 19세~만32세였으며, 연령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남성 24.7세(3.6), 여성 23.4세(2.8)였다. 커플간 연령차이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3세(2.4)였다. 교제기간은 1년~3년이 47쌍(34.9%)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남성의 학력은 대학재학이 61명(45.2%), 여성의 학력은 대학졸업이 57명(42.2%)이었으며, 직업은 남성 66명(48.9%), 여성 68명(50.4%)이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보다 상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가해동기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Stuart, Moore, Gordon, Ramsey와 Kahler(2006)가 개발한 폭력의 이유 척도(The Reasons for Violence Scale, RVS)를 오윤희(2016)가 국내에서 번안하고 보완·수정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상대방의 도발·공격 10문항, 정서·정신·신체상태 5문항, 의사소통 이슈 4문항, 힘·권위 행사 7문항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분노를 표출하려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의 표출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자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나의 공격 이유’와 ‘상대방의 공격 이유’로 나누어 알아보았으며, 각각 26문항으로 총 52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1점에

서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범위는 최저 26점에서 최고 1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동기가 공격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자신의 가해동기의 경우 .93, 상대방의 가해동기의 경우 .94로 나타났다.

폭력 정당화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Foo와 Margolin(1995)이 개발한 폭력 정당화 척도(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를 서경현과 안귀여루(2007)가 국내에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헤어지고 위협할 때’, ‘밤에 다른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을 막을 때’ 등 8가지 상황에서 파트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인지 아닌지를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범위는 최저 8점에서 최고 3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해 정당화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개발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 II)를 김정란(1999)이 수정·보완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심리적 폭력 11문항, 신체적 폭력 7문항, 성적 폭력 4문항으로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다’, ‘상대방을 밀친 적이 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행동을 조르거나 강력히 요

구한 적이 있다.' 등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범위는 최저 22점에서 최고 1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5.0과 AMOS 25.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둘째, 가해동기, 폭력 정당화,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의 총점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성별에 따른 집단 평균차이 및 대상에 따른 인식에서의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Kenny(1996)가 제안한 쌍 자료분석법인 APIM을 사용하여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를 통해 서로의 상호의존성 효과를 알아보았다. 넷째, 변인간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사용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인 가해동기

총점, 폭력 정당화, 데이트 폭력 가해와 그 하위변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r=.793, p<.001, r=.731, p<.001$), 자신의 데이트 폭력 가해($r=.474, p<.001, r=.557, p<.001$), 자신의 폭력 정당화($r=.448, p<.001, r=.403, p<.001$)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자신이 지각한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은 자신의 데이트 폭력 가해($r=.494, p<.001, r=.421, p<.001$), 자신의 폭력 정당화($r=.421, p<.001, r=.367, p<.001$)에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신의 데이트 폭력 가해는 자신의 폭력 정당화($r=.514, p<.001, r=.311, p<.001$)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외에도 주요 변인간 상관은 모두 유의하였다.

성별에 따른 집단 평균차이 검증

주요 변인에서의 남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t=-10.03, p<.001$), 여성이 지각한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t=-5.51, p<.001$), 폭력 정당화($t=-8.93, p<.001$), 데이트 폭력 가해($t=-6.32, p<.001$)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데이트 폭력 가해 하위변인 중 성적 폭력($t=2.99, p<.01$)에서만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표 3. 주요 변인에 대한 남녀 차이검증(N=270)

변인	남성(N=135)		여성(N=135)		t
	M	SD	M	SD	
1.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	33.10	10.39	49.14	16.21	-10.03***
1-1. 상대방의 도발·공격	13.10	4.49	20.24	7.29	-9.91***
1-2. 정서·정신·신체상태	6.24	2.07	8.59	2.80	-7.89***
1-3. 의사소통 이슈	5.48	2.35	8.30	3.76	-7.22***
1-4. 힘·권위 행사	8.27	2.75	12.01	5.52	-7.56***
2.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	34.73	12.96	43.99	17.76	-5.51***
2-1. 상대방의 도발·공격	13.73	5.68	17.12	7.09	-4.76***
2-2. 정서·정신·신체상태	6.42	2.42	7.96	3.21	-4.75***
2-3. 의사소통 이슈	5.89	2.98	7.47	3.57	-3.98***
2-4. 힘·권위 행사	8.70	3.30	11.44	5.79	-5.81***
3. 폭력 정당화	9.79	2.88	14.05	4.94	-8.93***
4. 데이트 폭력 가해	30.47	7.31	35.22	8.89	-6.32***
4-1. 심리적 폭력	18.34	5.33	22.41	6.92	-6.94***
4-2. 신체적 폭력	7.69	2.21	8.67	2.44	-4.15***
4-3. 성적 폭력	4.44	1.22	4.14	.59	2.99**

* $p < .05$, ** $p < .01$, *** $p < .001$

자신과 상대방의 가해동기 인식에서의 평균차이 검증

남녀 각각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자신의 가해동기와 상대방의 가해동기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자신의 가해동기보다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이 높았다($t = -2.41$, $p < .05$). 즉, 남성은 자신의 동기보다 파트너의 가해 동기가 폭력에 더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이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보다 높았다($t = 4.78$, $p < .001$). 즉, 남녀 모두 여성의

가해동기가 폭력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해동기 총점, 폭력 정당화,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명하게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과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을 나누어 개별 경로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은 자신의 폭력 정당화($\beta = .44$, $p < .001$, $\beta = .41$, $p < .001$), 자신의

표 4. 변인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APIM 분석결과

		경로		SE
자기 효과		남성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 -> 남성의 폭력 정당화	.44 ^{***}	.02
		여성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 -> 여성의 폭력 정당화	.41 ^{***}	.02
상대방 효과		남성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 -> 여성의 폭력 정당화	-.08	.04
		여성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 -> 남성의 폭력 정당화	.14	.01
자기 효과		남성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 ->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45 ^{***}	.05
		여성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 ->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55 ^{***}	.04
상대방 효과		남성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 ->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15 [*]	.06
		여성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 ->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31 ^{***}	.03
자기 효과		남성이 지각한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 -> 남성의 폭력 정당화	.40 ^{***}	.02
		여성이 지각한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 -> 여성의 폭력 정당화	.38 ^{***}	.02
상대방 효과		남성이 지각한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 -> 여성의 폭력 정당화	-.07	.03
		여성이 지각한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 -> 남성의 폭력 정당화	.11	.01
자기 효과		남성이 지각한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 ->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47 ^{***}	.04
		여성이 지각한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 ->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36 ^{***}	.04
상대방 효과		남성이 지각한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 ->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27 ^{***}	.05
		여성이 지각한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 ->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13	.03
자기 효과		남성의 폭력 정당화 ->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51 ^{***}	.19
		여성의 폭력 정당화 ->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29 ^{***}	.14
상대방 효과		남성의 폭력 정당화 ->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33 ^{***}	.24
		여성의 폭력 정당화 ->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03	.11

* $p < .05$, ** $p < .01$, *** $p < .001$

데이트 폭력 가해(=.45, $p < .001$, =.55, $p < .001$)에 유의한 자기효과를 보였고, 상대방의 데이트 폭력 가해(=.15, $p < .05$, =.31, $p < .001$)에 유의한 상대방효과를 나타냈다. 즉, 남녀 모두 가해동기 인식이 자신의 폭력 정당화를 촉진하고, 자신의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및 상대방의 가해행동도 촉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남녀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이

상대방의 폭력 정당화(=-.08, m , =.14, m)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가해동기 인식이 상대방의 폭력 정당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지각한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은 자신의 폭력 정당화(=.40, $p < .001$, =.38, $p < .001$), 자신의 데이트 폭력 가해(=.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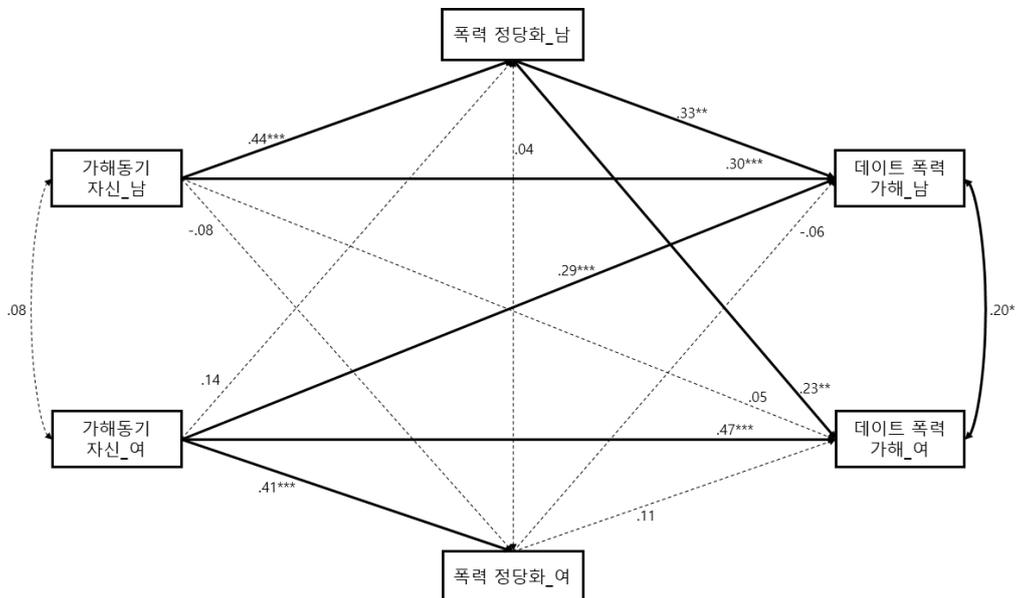
$p < .001$, $\beta = .36$, $p < .001$)에 유의한 자기효과를 보였다. 또한 남녀가 인식한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은 상대방의 폭력 정당화($\beta = -.07$, ns , $\beta = .11$, m)에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과 동일한 결과였다. 반면, 남성이 지각한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은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beta = .27$, $p < .001$)에 유의한 상대방효과를 나타냈고, 이에 반해 여성이 지각한 상대방의 가해동기 총점은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beta = .13$, m)에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성이 상대방의 가해동기를 인식하는 것이 파트너인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을 촉진할 수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의 폭력 정당화는 자신의 데이트 폭력 가해($\beta = .51$, $p < .001$, $\beta = .29$, $p < .001$)에 대해 유

의한 자기효과를 보였다. 반면, 남성에서만 유의한 상대방효과($\beta = .33$, $p < .001$)를 보였다. 이는 남성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뿐만 아니라 파트너인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APIM에 대한 경로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남성과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APIM으로 분석한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연구에서 분석한 APIM은 자유도(Degrees of Freedom)가 0인 포화모형(Saturated Model)이므로 모형의 적합도가 완전



* $p < .05$. ** $p < .01$. *** $p < .001$.

주. 실선은 유의한 경로이며,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1. 데이트 폭력 가해모형

적합모형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 해당하는 데이트 폭력 가해모형에서 남성의 경우, 남성의 가해동기 총점은 남성의 폭력 정당화(=.44, $p < .001$)를 매개로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33, $p < .01$)와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23, $p < .01$)에 영향을 주었으며,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30, $p < .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남성의 가해동기 총점은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05, m)와 여성의 폭력 정당화(=-.08, m)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여성의 가해동기 총점이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29, $p < .001$)와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47, $p < .001$), 여성의 폭력 정당화(=.41, $p < .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가해동기 총점은 남성의 폭력 정당화(=.14, m)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폭력 정당화에서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06, m)와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11, m)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유의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경로모형에서 매개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난 남성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에서 폭력 정당화를 통해 데이트 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10,000 샘플에서 실시하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남성 자신의 가해동기 총점은 남성의 폭력 정당화를 매개로 하여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17, $p < .05$, .059~.328)와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15, $p < .05$, .040~.304)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5. 가해동기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폭력 정당화의 간접효과 유의도 검증($N=270$)

직접 효과	B	SE	T	P
남성의 가해동기 총점 → 남성의 폭력 정당화	.45	.02	5.80	.000***
남성의 폭력 정당화 →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38	.20	4.80	.000***
남성의 폭력 정당화 →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33	.28	3.61	.000***
남성의 가해동기 총점 →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30	.06	3.88	.000***
남성의 가해동기 총점 →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04	.08	.46	.644

간접 효과	Effect	SE	95% CL	
			LLCL	ULCL
남성의 가해동기 총점 → 남성의 폭력 정당화 →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17	.07	.059	.328
남성의 가해동기 총점 → 남성의 폭력 정당화 →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15	.07	.040	.304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미혼 남녀커플을 대상으로 가해동기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련성을 APIM을 사용하여 탐색하였다. 최근에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양자관계인 커플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여 상호관계를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가해동기가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제 중인 남녀커플을 대상으로 가해동기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변인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고, 폭력 정당화를 매개로 하는 경로모형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은 가해동기, 폭력 정당화, 데이트 폭력 가해에서 유의미한 성차를 보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데이트 폭력 가해 하위변인 중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높게 보고하였다. 이는 여성이 데이트 폭력 중 심리적, 신체적 폭력 가해를 더 많이 행사한다는 선행연구(강희순, 이은숙, 2014; 손연우, 권호인, 2018; 장희숙, 조현각, 2001; O'Keefe, 1997; Riggs & O'Leary, 199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데이트 폭력 가해 하위변인 중 성적 폭력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적 폭력 가해를 더 많이 행사한다는 선행연구(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손연우, 권호인, 2018; 하예지, 서미경,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폭력의 양상이 다름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변인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남녀가 폭력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며, 폭력에 대한 방어적 태도의 차이가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폭력의 빈도를 평정하여 알아보았기 때문에 폭력의 강도를 중심으로 평가할 경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해동기 총점과 상대방의 도발·공격, 정서·정신·신체상태, 의사소통 이슈, 힘·권위 행사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폭력에 대한 가해동기가 높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오윤희, 임성문, 2019). 폭력 정당화의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문지혜, 2015; 이지연, 오경자, 2007). 반면, 남성이 여성보다 폭력 정당화가 더 높고 보여주는 선행연구와는 불일치한다(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 이호인, 2013; 임채영, 정소영, 이명신, 2010; 조은주, 2012; Riggs & O'Leary, 1996).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 표본이 다른 선행연구와 달리 커플이라는 점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결과에 대한 반복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신과 상대방의 가해동기 인식에서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남녀는 자신의 가해동기와 상대방의 가해동기 지각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가해동기보다 상대방인 여성의 가해동기가 폭력에 기여하는 정도를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특히 하위변인인 의사소통 이슈, 힘·권위 행사에서 상대방의 가해동기를 높게 보고하였다. 반면, 상대방의 도발·공격, 정서·정신·신체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여성은 상대방보다 자신의 가해동기가 폭력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지각하였으며, 특히 하위변인인 상대방의 도발·공격, 정서·정신·신체상태, 의사소통 이슈에서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커플의 남녀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의 가해동기가 데이트 폭력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지각하며, 남녀 모두 여성의 의사소통 이슈가 공통적으로 데이트 폭력에서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이 데이트 폭력에서 가해동기가 기여하는 정도를 남성보다 높게 평가한 선행연구(오윤희, 임성문, 2019)를 확장한 결과이다. 특히 여성의 폭력에 있어서 가해동기가 기여하는 바를 커플 내 남녀 모두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주요 변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분석결과, 남녀의 가해동기는 자신의 폭력 정당화와 자신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유의한 자기효과를 보였으며, 상대방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유의한 상대방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거절로 인한 좌절, 질투 상황 등 벌을 받을 만한 행동, 파트너를 통제하기 위함과 같은 가해동기가 폭력 정당화와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홍성열, 2000; Copezza & Arriaga, 2008; Riggs & O'Leary, 1996)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파괴적인 의사소통과 자기방어를 위해 또는 파트너에게 관심을 받기 위함과 같은 가해동기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오윤희, 임성문, 2019; Flynn & Graham, 2010; Follingstad, Wright, Lloyd, & Sebastian, 1991; Shorey, Meltzer, & Cornelius, 201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자신의 가해동기뿐 아니라 상대방의 가해동기에 대한

인식이 폭력 정당화 및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이 지각한 상대방의 가해동기는 남성의 폭력 정당화와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유의한 자기효과를,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유의한 상대방효과를 보였다. 이에 비해 여성이 지각한 상대방의 가해동기는 여성의 폭력 정당화와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유의한 자기효과만을 나타냈다. 이는 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가해동기는 파트너인 여성이 폭력을 사용하는데 기여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여성이 지각한 남성의 가해동기가 파트너인 남성이 폭력을 사용하는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 여성의 가해동기가 여성의 폭력 가해로 이어진다는 공통적인 결과이다. 가해동기 인식에서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와 종합하면, 여성의 가해동기가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 의사소통 이슈가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표현에 익숙하여 데이트 관계에서 불편감과 같은 정서적 표현이 원활하였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남성은 섬세한 감정을 표출하지 않도록 사회화 된 결과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조은경, 2003).

마지막으로, 가해동기가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폭력 정당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데이트 폭력 가해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경로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가해동기는 남성의 폭력 정당화를 매개로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해동기가 폭력을 정당화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를 할 확률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높다는 선행연구(Riggs & O'Leary, 1996)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또한 남성의 가해동기는 폭력 정당화를 매개하여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가해동기가 남성의 폭력을 정당화하여 여성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남성이 폭력을 수용할수록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선행연구(손혜진, 전귀연, 2003; 유선영, 2000)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폭력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일 경우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예정, 김득성, 1999; 김재엽, 1998; 서경현 등, 2001; 안귀여루, 2006). 또한 남성의 폭력 정당화 태도가 여성의 폭력 사용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남성 자신의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남성의 폭력에 대한 태도가 데이트 폭력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태도는 남성의 폭력뿐만 아니라 여성의 폭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남성이 폭력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여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Bookwala et al. 1992; O'Keefe, 1997). 즉, 남성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나타내면 여성은 이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가해동기가 폭력 정당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폭력 정당화를 매개로 폭력 가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신 여성의 가해동기는 여성의 폭력 가해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파트너인 남성의 폭력 가해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 정당화를 매개로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정혜정, 2003; Stets & Pirog-Good, 1987; O'Keefe, 1998)와 폭력 정당화가 남성에게서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정혜정, 200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있어서 가해동기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폭력 정당화가 남성과 여성의 경로에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녀가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폭력을 인식하는 수준이 낮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정도가 높다는 연구(안귀여루, 2006; Molitor & Tolman, 1998)와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폭력에 대한 수용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하예지, 2014; Molitor & Tolman, 1998)와 일치한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며, 민감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Stets & Pirog-Good, 1987)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성별의 특성 차이와 사회문화적 요인이 폭력에 대한 태도와 이후의 폭력 행동 과정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폭력을 연인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지각하거나 갈등 해결방식으로 인식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을 쉽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폭력 행동을 문제 해결방법으로 여기고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 및 개입이 필요하다. 가해동기가 데이트 폭력으로 가는 과정에서 폭력 정당화가 중요한 변인임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므로 남성과 여성에 따른 차이에 대해 반복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폭력 정당화가 데이트 폭력 피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과제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교제 중인 일반 커플을 온라인으로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심각한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는 커플에 연구결과를 적용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는 135쌍 커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표본 수가 적어 성인 남녀커플을 모두 대표하기에는 어렵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해동기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여 조사함으로써 지각자의 특성에 따른 가해동기를 알아보았다. 또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을 사용하여 개인 단위 분석이 아닌 남녀커플을 단위로 데이트 폭력을 연구하여 커플 내에서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의 가해동기가 자신의 폭력 정당화를 매개하여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와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을 설명하였다. 또한 폭력 정당화가 남녀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여 데이트 폭력 예방과 개입에 관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강희순, 이은숙 (2014).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예측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3(4), 288-298.

경찰청 브리핑 (2019).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7월~8월) 운영 결과. 경찰청, 2019.

경찰청 브리핑 (2020). 데이트폭력, 신고해야 할 ‘범죄’입니다. 경찰청, 2020.

권석만 (2004).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도연, 이기은, 이종현 (2017). 데이트폭력 피해 및 실태조사 결과.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2017.

김동기 (2009).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6), 135-159.

김수경 (2003). 대학생의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과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예정, 김득성 (1999). 데이트관계에서 폭력집단의 특성과 신체적 폭력 발생의 맥락.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87-211.

김재엽 (1998).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87-114.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재규, 이설 (2019. 08. 12.). 육군 중위, 여자 친구 무차별 ‘데이트 폭력’ 긴급체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694162>.

장현석 (2020. 05. 21.). ‘故 구하라 폭행’ 최종 범 2심 시작 동시에 구형...검찰 “모두 유죄”.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521001014>.

문지혜 (2015). 대학생이 지각한 성장기 폭력 경험과 폭력허용도 및 데이트 폭력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사공은희 (2007).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8(2), 1-15.
- 서경현 (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147-162.
-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연애폭력과 예측변인. 여성건강, 2(1), 75-97.
- 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 제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81-799.
- 서경현, 안귀여루 (2007).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2), 77-96.
- 서경현,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연애폭력에 대한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7(2), 91-106.
- 최상진 (2019. 12. 19.). 온라인 떠들썩하게 만든 '광주 데이트폭력' 항소심도 일부 유죄. 서울경제.
<https://www.secdaily.com/NewsView/1VS4V2SGYM>.
- 손연우, 권호인 (2018).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파트너 통제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549-566.
- 손혜진, 전귀연 (2003). 미혼 남녀의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43-63.
- 신혜섭 (2007). 데이트폭력 피해의 위험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2(2), 149-170.
- 안귀여루 (2006).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706-726.
- 양난미 (2009). 대학생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0(4), 2539-2554.
- 연성진 (2000). 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124.
- 오윤희 (2016). 대학생이 지각한 데이트폭력 가해동기와 데이트폭력의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윤희, 임성문 (2018). 대학생이 지각한 가해동기와 데이트폭력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2), 223-245.
- 오윤희, 임성문 (2019). 대학생이 지각하는 데이트폭력 가해동기: 성차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8(1), 49-77.
- 유선영 (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폭력 피해간의 매개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열등감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19(6), 79-107.
- 이정화 (2007). 데이트폭력의 심리적 후유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오경자 (2007).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 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433-450.
- 이효인 (2013). 학교스트레스가 학교폭력허용도

- 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화영 (2014).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채영, 정소영, 이명신 (2010). 대학생의 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0), 147-179.
-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회지, 8(0), 179-200.
- 정소영, 임채영, 이명신 (2011).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편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와 관계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4), 127-151.
- 정혜정 (2003).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3), 73-91.
- 조은경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1), 1-21.
- 조은주 (2012). 중학생의 학교폭력허용도와 동적학교생활화(KSD) 반응특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예지 (2014). 데이트 폭력 인식과 대처에 관한 연구 - 데이트폭력 비네트를 중심으로 -.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 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홍성열 (2000). 범죄심리학, 서울: 학지사.
- Bookwala, J., Frieze, I. H., Smith, C., & Ryan, K. (1992).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7(4), 297-311.
- Capezza, N. M., & Arriaga, X. B. (2008). Factors associated with acceptance of psychological aggression against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14(6), 612-633.
- Cascardi, M., & Vivian, D. (1995). Context for specific episodes of marital violence: Gender and severity of violence differenc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3), 265-293.
- Celeste Walley-Jean, J., & Swan, S. (2009). Motivations and justifications for partner aggression in a sample of African Ame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8(7), 698-717.
- Collins, R. (2009). *Violence: A micro-sociological the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lynn, A., & Graham, K. (2010). "Why did it happen?" A re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for research on perpetrators' and victims' explanation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5(3), 239-251.
- Follingstad, D. R., Wright, S., Lloyd, S., & Sebastian, J. A. (1991). Sex differences in motivations and effects in dating violence.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40(1), 51-57.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4), 351-377.
-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2), 279-294.
- Lanhinrichsen-Rohling, J., Misra, T. A., Selwyn, C., & Rohling, M. L. (2012).

- Rates of bidirectional versus unidirectional intimate partner violence across samples, sexual orientations, and race/ethnicities: A comprehensive review. *Partner Abuse*, 3(2), 199-230.
- Makepeace, J.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1), 97-102.
- Malloy, K. A., McCloskey, K. A., Grigsby, N., & Gardner, D. (2003). Women's use of violence with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6(2), 37-59.
- Molidor, C., & Tolman, R. M. (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4(2), 180-194.
- Neal, A. M., & Edwards, K. M. (2015). Perpetrators' and victims' attributions for IPV: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18(3), 239-267.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1), 39-57.
- Riggs, D. S., & O'Leary, K. D. (1989). A theoretic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In M. A. Pirog-Good & J. E. Stets (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p. 53-71). Praeger Publishers.
- Riggs, D. S., & O'Leary, K. D.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a caus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4), 519-540.
- Roscoe, B., & Benaske, N. (1985). Courtship violence experienced by abused wives: Similarities in patterns of abuse.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34(3), 419-424.
- Shorey, R. C., Meltzer, C., & Cornelius, T. L. (2010). Motivations for self-defensive aggression in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and victims*, 25(5), 662-676.
-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3), 237-246.
- Straus, M. A. (1978). *Normative and behavioral aspects of violence between spouses: Preliminary data o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USA sample*. University of New Hampshire.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tuart, G. L., Moore, T. M., Gordon, K. C., Ramsey, S. E., & Kahler, C. W. (2006). Reason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mong arrested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12(7), 609-621.

논문 투고일 : 2021. 07. 27

1 차 심사일 : 2021. 07. 28

게재 확정일 : 2021. 10. 13

**The effect of male and female motivation and justification
for violence on perpetrators of dating violence: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Sookjeong Lee

Hoin Kwon

Jeon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 of violence justification, including actor-effect and partner-effect, in the process where the offense motive affects dating viol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5 unmarried male and female couples aged 19 and over who were dating for more than 3 months, and each couple was subjected to a self-report scale on motives, justification of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Based on these paraphrasing,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ath model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Men and women's motivations showed a direct effect on their dating violence, while women's motivations showed a significant partner effect on men's violence. The male's motivation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his dating violence and partner's abuse of dating violence as a mediator for justification of his violence. On the other hand, the mediating effect of justifying violence in women was not significant.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gender difference between the motives for violence and the paths for justifying violence in the sex violence of men and wome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Motivation, Justification of violence, Dating Violence, APIM